2. 상장사, 올 들어 타법인 주식 ‘사고팔고’ 활발해져

**-유가증권ㆍ코스닥 상장법인, 타법인 주식 취득금액 전년比 238.6%↑**  
  
**-롯데케미칼의 롯데첨단소재 인수, 주식 취득금액 2조3265억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 들어 유가증권(코스피)ㆍ코스닥 상장법인의 타법인 주식 취득ㆍ처분 관련 금액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케미칼과 미래에셋증권의 타법인 주식 취득금액은 2조원을 훌쩍 넘어서며 금액규모 상위에 올랐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유가증권ㆍ코스닥 상장법인의 타법인 주식 취득공시는 1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 늘었다. 이에 따른 취득금액은 19조36억원으로 같은 기간 238.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의 공시건수는 81건, 취득금액은 15조405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4.6%, 233.2% 증가했다. 코스닥 상장법인의 공시건수(114건)와 취득금액(3조5981억원)은 75.4%, 263.4% 늘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다수의 상장법인이 경영권 인수 등 신규사업 진출이나 사업다각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대규모 타법인 주식 취득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중 롯데케미칼의 롯데첨단소재(舊 SDI케미칼) 인수,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와 관련된 주식 취득금액은 각각 2조3265억원, 2조3205억원으로 전체 타법인 주식 취득금액(19조36억원)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KB금융의 현대증권 인수(1조2375억원), 카카오의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1조8743억원) 등의 취득금액도 1조원 규모였다.   
  
이와 함께 타법인 주식 처분금액도 큰 폭으로 늘었다.   
  
주식 처분공시는 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8%, 처분금액은 9조4762억원으로 107.6% 늘어났다.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공시건수(49건)와 처분금액(8조4910억원)은 각각 58.1%, 9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각각 29건, 985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1.5%, 335.5%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타법인 주식 처분금액이 가장 컸던 사례는 삼성SDI의 롯데첨단소재ㆍ삼성물산 주식 처분(3조915억원)이었다. 현대상선의 현대증권 처분(1조2303억원), CJ오쇼핑의 씨제이헬로비전 처분(5000억원) 등도 주요 사례로 꼽혔다.   
  
주식 처분 목적은 자산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핵심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 마련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